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발돋움

고창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선포식’ 서울서 가져

고창군이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고창군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시그니엘 호텔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과 주요 언론사,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서포터즈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고창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심덕섭 군수는 “오는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확실시 되고 있다”며 “국내 유일 유네스코 6관왕 도시의 중요성과 찬란한 품격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며 고창 방문의 해 선포식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은 고창군 관광 홍보영상과 퍼 및 추진방향 발표, 서울관광재단·한국여행업협회와 공동홍보마케팅 업무협약 체결식, 방문의 해 성공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고창출신 유명인사와 연예인들이 친선·홍보대사로 위촉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종남 서울대 명예주임교수와 배우 박근형씨, 소리꾼 장사익씨가 친선대사로 위촉됐다.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는 배우 조재운, 김규리씨와 가수 김태연, 김현씨, 마술사 박종원씨가 홍보대사로 뛰기로 했다.

고창군은 올해 불거리, 줄길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확충해 2023년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오는 4월 하순 청보리밭축제, 5월 아·태 마스터대회, 6월 북본자·수박축제, 7월 갯벌축제,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9월 해풍고추축제, 10월 제50주년 모양성제/고인돌 미디어아트 등이 준비되고 있다.

대표축제 사이에도 빛깔과 유채·퐁퐁(봄), 라벤더·해바라기(여름), 꽃무릇·핑크몰리·국화(가을) 등이 없이 피어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소규모 페스티벌과 공연, 세미나



고창군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시그니엘 호텔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과 주요 언론사,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서포터즈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고창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티투어는 순환형·테마형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인돌과 운곡습지, 고창 갯벌 방문을 중심으로 관소리 박물관과 생태마을 체험을 돌아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에서 치유 운동 프로그램과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운곡습지 탐방과 함께 생태탐방, 생태도시락까지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고창농악과 관소리를 더 많은 관광객들이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고창군은 6~9월말 매주 금요일 성송면 농악전수관에서 진행하던 고창농악 상설

공연을 5월경부터 접근성이 좋은 고창읍성 앞 동리정사 등에서도 진행한다.

오는 10월 고창군 대표축제인 모양성제가 50주년을 맞는다. 앞서 고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연계 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R&D)에 선정돼 올해 모양성제에 가상현실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생태자원의 이야기가 기술에 녹아 들어가 더욱 감동스럽고 입체적인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인류문화유산과 생태관광기부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해 내는 고창의 매력을 맘껏 느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물관에서 전통문화 체험해요”

국립전주박물관, 설맞이 제27회 작은문화축전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삼기)은 21~24일 4일간 ‘2023 설맞이 제27회 작은문화축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22일 설날 당일엔 휴관이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와 요즘 아이들에게 생소한 전통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물관 옥외뜨락에서는 상설체험마당이 설치돼 활쏘기, 율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사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맷돌과 절구, 도량형 기구를 직접 만져보고 계량해 볼 수 있는 옛 생활도구 체험마당과 올 한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새해 소원 부적 찍기도 운영된다.

또한 ‘전통놀이 오감’은 전래놀이 체험부스를 설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겨했던 쌍륙놀이를 장치기, 고누놀이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1일과 23일에는 장수문화예술촌의 장인과 함께 가오리 연 등 전통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와, 관람객이 직접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체험 등 전통의 멋과 놀이를 다양하게



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물관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 및 체험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 개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20~24일까지 설맞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설 당일엔 휴관이다.

이에 따르면 토끼 편치니들이란 탈실 자수 공예의 일종으로, 수틀에 준비된 원단을 끼우고 원단에 실을 바느질 하듯이 찢어 넣어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편치니들 배부행사, 소원 엮서 적기 체험, 연날리기, 특별전 연계 인증사진 이벤트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대면 체험용으로 제공되는 편치니들 키트는 계묘년을 맞아 토끼를 소재로 한 것으로, 키트 속 도구를 사용해 가정에서 손쉽게 탈실 자수 공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편치니들 키트는 16일부터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가능 인원은 100명이다. 또 소원 엮서 적기 체험은 박물관 그림이 그려진

려진 엮서에 이투고 싶은 소원을 적어 소원상자에 넣으면 1달 뒤, 엮서가 집으로 배송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체험 장소는 박물관 로비이며, 별도 예약없이 현장에서 체험 가능하다.

이와 함께 특별전 ‘전북의 고대 석곽’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있다. 행사기간 중 박물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특별전을 관람 인증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 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참여선물로 ‘전북의 고대 석곽’ 퍼즐을 증정한다.

끝으로 연날리기는 어린이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연을 수령한 후, 박물관 앞마당에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연은 1일 100명 선착순 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역사관광지 선점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 시범 운영

익산시가 ‘동아시아 최대사찰터,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가상현실 공간에서 재탄생시키며 메타버스 역사문화관광지 선점에 나선다.

시는 네이버제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미륵사지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시대 최대의 사찰로 알려진 ‘미륵사’와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견된 ‘국보 사리장엄구’ 및 다양한 유물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것으로 중요 건축물에 대한 디지털 복원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

받는다.

디지털 및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과 소통에 익숙한 Z세대가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된 ‘메타버스 속 역사문화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문자가 임무 해결에 따른 성과보상, 가상공간의 자유로움과 방문객들간의 상호작용이 큰 매력으로 돋보인다.

메타버스 상에서 미륵사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모든 임무 완료 후에 중원 금당지에 도달하면 가상의 미륵삼존을 만나게 되며 미륵사지 월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름을 지

급받게 된다. 지금쯤 구름을 타고 미륵사지 석탑 위에 올라가 흠을 취하기도 하고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등 가상의 공간을 활용해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페토 플랫폼 내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월드로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퀘스트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간 소통이 가능해 생생한 가상현실 문화재 콘텐츠로 차별점이 부각된다.

한편 시는 올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및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실제 미륵사지 방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 가위박물관, ‘가위, 예술을 만나다’ 기획전시

진안군이 직영하는 가위박물관에서 오는 29일까지 ‘가위, 예술을 만나다’ 기획전시가 열린다.

‘가위, 예술을 만나다’는 전라북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권규연, 김원, 장우석, 장지은 미술작가의 가위를 주제로 한 작품과 작가의

개인적인 관심, 주변 관계 등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21일, 24일에는 가위박물관이 정상 운영돼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